

사회복지시설 탐방 ⑥ "가나안의 집"

시각장애인의 편안한 안식처 제공



지난해 건물을 완공하고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중인 가나안의 집. (원안은 허길용 목사)

"가나안의 집은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맹인들의 눈이 되어 주기 위해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집(원장 허길용 목사·66)은 신북면 신령리 548-3번지에 위치, 조건부 신고시설로 등록된 시각장애인보호시설이다.

생활하고 있다. 허길용 목사가 시각장애인 보호시설을 운영하게 된 데는 초등학교 6학년때 불발탄으로 인해 실명하여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허 목사는 "실명이 된 이후 줄 곳 교회와 인연을 맺고 살아왔고, 1960년 신학대학 입학한 후 목사로서 생활을 해 왔다"며 "목사가 된 이후 시각장애인들에게 빛이 되어주기 위해 시설 운영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1990년부터 포천에 정착, 3명의 맹인들과 함께 가나안의 집을 시작하게 되어 현재는 3동(134평-숙소, 60평-교회, 38평-식당)의 손색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건물이 완공된 이후 왜곡된 시선으로 인해 후원이 끊어져 다가오는 여름을 걱정하는 실정이다. 허 목사가 지금의 시설을 지은 것은 남다른 이유가 있어서였다. "조건부신고시설로 신고한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후원금과 사재를 털어 2002년부터 건물을 짓기 시작해 지난해 완공했다"며 "막상 법인 전환을 위해서는 2년간의 운영예산인 6억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뒤야 법인 승인이 난다는 경기도 관계부서의 얘기를 듣고 망연자실했다"고 밝혔다. 허 목사는 "정부에서는 오는 7월을 전후로 준비중인 신고시설로의 전환에만 욕심을 부리고있다"며 "정부의 정책은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통해 시설의 유효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 그렇기 때문에 법인전환에 소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전환은 인건비 등 운영비를 국가에서 보조받을 수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자부담 없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현재 가나안의 집은 3억원의 운영자금을 준비해두고 법인 승인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법인전환을 모색하던 중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가나안의 집에 닥쳤다. 지난해 연말 이후 도움을 주던 단천교회와 후원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허 목사는 "법인으로 전환을 위해 건물은 새로 지어 놓고 현금을 준비해 두고 있으니, 시설을 찾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시설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재 민간단체들에서 봉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허 목사는 "일반 봉사자들은 시설을 방문해 청소나 빨래를 위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왕이면 봉사자들과 시각장애인들간에 함께 식사시간을 마련해 어울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봉사단체 중 "신북면 26개리의 마을 부녀회에서 지난 8년간 여름감자를 해 줘서 고맙게 잘 먹었다"며 "정황이 없어 제대로 된 인사를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다. 한편 허 목사는 이웃들에게 "가나안의 집은 여는 가정과 별다른 없다"며 "다만 불우한 이웃이 산다고만 생각하고 건강한 주위 사람들이 함께 보살펴 주었으면 좋겠다"며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호소하기도 했다. 후원: 국민은행 044-24-0006-252(예금주: 허길용) 문의: 031-534-4259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새마을운동 포천시지회 2005년 이사회

1억6천3백만원 예산 승인



새마을운동포천시지회는 지난 25일 2005년 포천시새마을지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새마을운동포천시지회(지회장 강태선)는 지난 25일 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2005년 포천시새마을지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실시된 이날 이사회는 2004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예산결산 승인 200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의결된 2005년도 예산액을 살펴보면 ▶지방비보조금 1억3천4백만원 ▶중앙보조금 1천5백만원 ▶출연금 6백만원 ▶회비수입 등 기타수입 8백20만원 등 총 1억6천3백만원으로 산출되었다. 또 2005년도 총지출예산액은 사업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을 모두 합해 1억6천3백만원의 원인이 상정돼 이사회를 승인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달 발생한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대자 관인면새마을부녀회장에 지회장 및 협의회에서 마련한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농촌 주부의 이웃사랑 실천하기

지역회 평범한 시골 아낙들의 범상치 않은 마음 씀씀이를 소개한다.



고진숙 포천시농주부명예기자

포천시 화현면 화현4리 마을 아낙 14명은 6년 전부터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모임을 시작했다. 한달에 한번씩 날짜를 정해놓고 소소한 정담을 나누며 밥 한끼 먹고 헤어지곤 했는데 누군가 "우리 이렇게 만나 밥만 먹고 헤어질게 아니라 작은 힘이라도 이웃을 위해 모아보자" 라는 제안에 기꺼이 한마음이 되었다. 이후 줄곧 가는 곳이 있다. 그곳은 소규모로 운영하는 지체장애자의 쉼터인 '해뜨는 집'이다. 우리 아낙들은 자국적인 단체도 아니고 넉넉한 재원이 있어 그들을 충족시켜 줄만한 부자는 더더욱 아니다. 단지 빈손이지만 건강한 몸으로 그들의 웃기자들을 세태해주고 책을 읽어주거나 불편한 몸을 부축해서 밥을 먹여주며 식사도 같이하고 14명의 회원의 감정을 풀어 해마다 씀씀이도 담아주고 일반한 등사람을 나누었다. 이처럼 함께 정을 나눈 지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며 해뜨는 집에 살고 있는 식구들과 가족처럼 가까워졌다. 이웃을 돕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많이들 한다. 그러나 실천하기까지는 많이들 망설이는 편이다. 이웃사랑 실천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겨우 한 두 번 실천하고 바쁜 생활로 그만두기 십상이다. 그러나 6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각자 가정에서 축산과 농사일로 바쁜 가운데 틈을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참다운 이웃사랑 실천의 모범사례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들 화제의 주인공은 '다사랑'이며 회원은 김현주, 이용희, 유기호, 송유순, 조용숙, 정금자씨등 모두 14명이다. ksj3605@korea.com

포천심터

갈등을 사랑하라



석혜승 불문정사주지

옛 성현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다.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 해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써 원망을 삼으라' 하셨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들과 갈등 없이, 늘 좋은 관계만을 유지하면서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까? 결론적인 이야기 가 되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바람 자체가 잘못되었기에 불가능한 것이다. 늘 좋지만 하다는 명제에는 내 뜻대로 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늘 내 뜻에 맞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법이다.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다. 하물며 남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기 바란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생각이다. 그래서인지 성숙도가 낮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바람이 크다.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으면 화부터 난다. 자신과 다른 의견과 욕구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갈등 자체를 견뎌내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쉽게 관계를 끊으려 한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찾아 떠난다. 하지만 악순환일 뿐이다. 집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도 샌다는 말이 있다. 갈등 없기를 바라지 말라. 그 자체가 갈등을 증폭시킨다. 갈등은 나를 성숙시키는 계기이므로 오히려 즐기기 바란다. 필자연락처 031-542-0032

우수 주민자치센터 전학을 마치고

포천시는 자매도시인 서울시 노원구 소재 2곳의 주민자치센터를 벤치마킹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일동면, 영북면, 화현면, 포천동 자치위원장과 자치위원등 27명은 지난 24일 서울시 노원구 중계 4동 주민자치센터와 하계 1동 주민자치센터 등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노원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자치위원이 해야 할 일을 좀더 높게 생각하고 월등히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내 고장을 보다 아름답고 살기좋은 마을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연옥 포천시농주부명예기자

중계4동 기타교실(회장 서영자) 수강생들의 기타연주와 담례로 영북면 오세철(경기도 무형문화재 풀피리 보유자)위원의 풀피리 연주를 마치고 하계1동 자치센터로 향했다. 하계1동(동장 왕관옥)님과 짧은 간담회를 마치고 탁구교실 수강생들과 간단한 친선게임과 다과회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을 살펴보기도 했다. dgusdr011@korea.com



신규교사 및 전임교사 발령장 수여식 경기도 포천교육청(교육장 변진수)은 지난 23일 신규교사 및 전임교사 발령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2005년도 자연보호포천시협의회장이 취임식

신임 장혜광 회장 "환경보호 실천하겠다" 약속

자연보호 포천시협의회는 지난 23일 포천시 여성회관에서 2005년도 자연보호 포천시협의회 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협의회원과 시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박운국 포천시장은 이날 새로 취임한 자연보호 포천시협의회 ▶장혜광 회장과 ▶김명화 사무국장 ▶박경철 영종면협의회장 ▶이찬규 화현면협의회장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 임하는 ▶유금열 회장과 ▶유태 회관 사무국장 ▶이봉춘 영종면협의회장 ▶이건중 화현면협의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장혜광 회장은 취임사에서 "환경보호는 이론이나 홍보가 아닌 실천에 의해 이뤄진다"며 "앞으로도 환경포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협의회가 중심역할 할 것"을 결의했다. 자연보호 포천시협의회는 그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쓰레기 배출요령 캠페인, 등산 후 쓰레기 제거하기 캠페인, 포천전 생태계복원을 위한 다습기 방류사업, 폐지 폴 제거사업, 그리고 국토대청결 및 하천정화활동 등을 통해 포천의 환경보존과 시민들의 환경의식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한편 이날 내촌면과 창수면, 일



지난 23일 포천시 여성회관에서 개최된 2005년도 자연보호 포천시협의회 총회에서 신임 장혜광 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동면 협의회는 우수협의회로 선정돼 협의회장 표창을 받았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고 / 향 / 생 / 각



새 코고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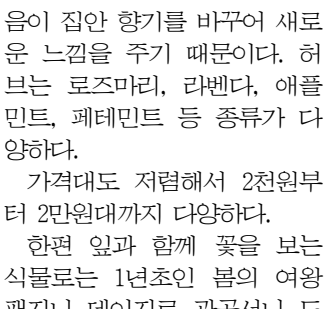
조귀순 (포천시 가신면 출생, 수필가)

새 학년이 되자 어머니가 새신을 사 주셨다. 빨강, 노랑, 초록의 색깔이 잘 어울려 아주 고운 기차표 코고무신이다. 너무 좋아 고무 뽀뽀를 맡으며 이불속에 품어 안고 잤다. 걸어서 오십여 분이나 걸리는 오리(五里)길. 멀지만 했던 학교 가는 길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걸음걸음마다 눈을 아래로 살짝 내리 뜨고 신발 코에 눈을 맞췄다. 허식 짓은 새아이들이 발이라도 걸면 어쩔까 지레 걱정도 하였다. 질척한 진흙길은 피해서 걸가장자리만 밟고 걸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니 어머니께서 새신은 학교 갈 때만 신고 집에서는 헌신을 신고라고 하였다. 나는 못들은 것처럼 탄 척을 부리다 헌신을 마루 밑으로 수축 밀어 넣었다. 언니랑 살며니 나가니 아이들이 비석치기를 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발등에 돌을 올려놓으려면 신발을 거꾸로 신어야 하므로 놀이날까봐 하지 않았다. 까슬까슬한 바닥이 닳을까봐 고무줄놀이도 싫다고 하였다. 좁고 꼬불꼬불한 논두렁길을 사뿐사뿐 걸었다. 보드라운 풀 위를 걸으면 밟지 않을 것만 같았다. 냇이, 꽃피자, 소리쟁이 까두레기가 부러운 듯 바라보는 것만 같았다. 논두렁 위로 나와 있던 개구리들이 폴짝폴짝 눈독 풀숲으로 뛰어들었다. 내가 마치 위엄 있는 대장이라도 된 것처럼 우물거렸다. 그런데 미끄러져 새신이 벗겨졌다. 페그르르 쿠르더니 하릴이면 옆에 수렁(동명이)으로 굴러 내려갔다. 놀라고 다급한 마음에 얼른 잡으려다 하마터면 그대로 빠질 뻔했다. 허겁지겁 주위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손으로는 잡히지가 않아 기다란 막대기를 찾아보았다. 물은 잠잠한데 어찌서 동동 뜬 신발은 자꾸만 떨어지는 걸까. 언니가 돌맹이를 한주먹 모아왔다. 하나씩 던져 물살의 포물선을 만들어 가장자리로 오도록 돌을 썩 보았다. 돌이 일으킨 물살에도 한가운데서 밀려나오질 않았다. 핑거지는 물방울들이 도리어 신발 속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가만가만 두 손으로 물을 밀어 보냈다. 그런데 아예 물 속 깊숙이 가라앉은 게 아닌가. 아버지께 꾸중들을 걱정이 진사택 집 체만큼 부풀어올랐다. 물 속을 바라보면 고무신은 희미하고 걱정 담긴 얼얼한 덩그러니 보였다. 새신 들은 연못빛 버드나무가지처럼 아른아른 흔들렸다. 옛날이야기처럼 너무 꼭 대기에 올라가면 선녀가 두레박이라도 내려 줄까. 어둑어둑한 논두렁에 쪼그리고 앉았다. 땅 거미가 지자 개구리울음소리가 구슬뿜게 들렸다. 코 속이 싸하게 맵더니 그렇거던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어름이 무섭기도 하고 혼이 날 것에 두려움은 커지고... . 버들가지 비를어서 만든 호물기가 주머니 속에서 잡혔다. 깜깜할 때 호물기를 보면 밤나온다던 말이 떠오르자 더 으스스 했다. 암에게 붙어 달라고 하려 했는데, 가지고만 있어도 뱀이 나올까봐 풀숲으로 던져 버렸다.

가자. 내일 날 밝으면 꺼낼 수 있어. 걱정 마. 언니가 내 팔을 잡아 일으키며 위로하고 달래주었다. 그러자 더 크게 소리를 내어 울었다. 겨우 대문 앞까지는 왔는데 들어가기는 정말 겁이 나 주눅이 들었다. 언니가 나를 업었다. 바위처럼 넓은 아버지의 등보다 언제나 그저 좋지만 한 어머니의 등보다 작은 언니의 등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고 아늑했다. 신은 지 하루도 못되어 잃어버리고 들어왔으니 얼굴을 등 깊숙이 문었다. 울음 끝에 나오는 흐느낌으로 어깨가 젖었다. 방문이 열리는 순간 아예 눈을 감아 버렸다. "어워지면 얼른 데리고 들어와야지." 어머니는 늦게까지 놀다온 것만 조용히 나무라셨다. 나를 아랫목에 눕히고 언니는 수렁에 신발을 빠뜨려 꺼내다라 닦아주었다. "뒤편이 새신을 빠뜨렸단 말이야? 별나게 까불러라니!" 아버지의 호롱소리가 날까봐 어머니가 선수를 치신 것 같았다. "어디, 누구도 수렁이냐? 꼬맹이가 걱정 피나 했잖아." 생각했던 것보다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았다. 때때로 간 게 아니니 다행이라는 말씀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제야 뱃속에서 꼬르르 소리가 나왔다. 배가 고깃집만 그래도 잠든 척 하던 꼴이라 일어나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기차역을 쫓아 밭 적어하며 눈을 비비고 마루로 나왔다. 일부러 마루 밑으로 내던진 헌 고무신이라도 꺼내야 할 것 같았다. 그런데 밭 위를 짝짝 찾은 알록달록한 코고무신이 가지런하게 놓여 있는 게 아닌가. 뱃속에도 신발 끝만 꾸더니 아직도 잠이 덜 깨진 꼴이. 장대 끝에 묶인 갈고리를 끌고 갠 아버지의 모습에 꿈에서 본 것만은 아니었던가 보다. nou40@hanmail.net

식물기르기 ⑦ - 봄식물 가꾸기

이제 봄 준비와 더불어 가정에서 가꿀 식물 선택에도 관심을 가져볼 시기이다. 식물선택에 있어서 먼저 식물에 대해 잘 알고 정확한 이름과 원산지 등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햇빛을 좋아하는지, 습한 곳을 좋아하는지, 물주는 시기, 놓는 장소 등 구입한 식물의 습성을 알아두면 실수가 없기 때문이다. 집안에 꽃이나 식물 등 자연물을 두는 것은 최근의 리빙 트렌드인 내추럴리즘에도 부합한다. 다음으로 원예에 오래 동안관심을 가져온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면 비교적 작간에 구입하고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허브나 아이비 등을 길러보는 것이 좋다. 아이비는 천장에 매다는 형태(행잉바스켓)의 화분 안에 심어놓고 하루에 한번씩 물만 주면 걱정 없이 자라준다. 아래로 뺏어 내리는 푸른 잎을 통해 집안 가득 싱싱함이 퍼지는 즐거움이 있다. 아이비와 같은 관엽식물로는 호야, 페터, 식고디움 등이 있다. 허브도 봄 집안 꾸미기에 권할 만 하다. 향긋한 내



정선교 주부명예기자단 가시주부장 다진대학교 평생교육원 풀리우디자이너 겸사

"봄~봄~봄이 왔어요! 우리를 마음속에도~" 봄노래를 흥얼 거려본다. 어찌보면 봄은 모든 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인 듯 하다. 새로운 관문에 도전하는 새내기 직장인 학생들 따사로운 봄과 함께 힘차게 화이팅을 외쳐보자. 세상은 아름답다고 꽃과 향기가 있어 마음은 늘 풍요롭다고 말이다. user0316@nate.com